

# 집단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편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성편견, 인종편견과 한국의 성편견, 지역편견의 비교\*

김혜숙

이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비교문화적 연구를 통해 미국의 성편견, 인종편견(연구 1) 그리고 한국의 성편견(연구 2)과 지역편견(연구 3) 과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집단범주에 근거한 편견적 판단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고, 또한 편견적 판단이 집단범주에 대한 신념에 의해 보다 영향받는지 혹은 감정에 의해 보다 영향받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한국의 대학생들은 유사한 형태의 성편견적 판단(즉, 남성을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판단함)을 보였고, 이러한 판단은 성집단에 대한 호감도에 의해 보다 잘 예언되었다. 한국의 지역편견적 판단(즉, 영남인과 호남인을 충청인보다 더 주장적이라고 판단함)은 지역집단에 대한 신념이 호감도보다 더 잘 예언해 주었다. 미국의 인종편견적 판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의미와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주제어: 편견, 감정, 신념, 문화비교

편견과 고정관념은 집단 간 갈등의 주요 요소로서, 특히 지난 20년 동안 사회심리학의 주요 연구 분야로 많은 연구들이 그 구체적 과정과 결과를 밝히고자 행해졌다. 그러한 연구 결과, 편견은 현실적 갈등(Bobo, 1983)에 의해, 집단 범주화에 근거한 사회적 정체감을 높이기 위해서(Tajfel, 1982), 어렸을 때부터의 사회화 과정에 의해서 혹은 확인 편파를 일으키는 고정관념 등의 인지적 과정(Fiske, 1993)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학계에서는 이러한 여러 요인들 중 특히 고정관념이나 범주화 등과 같은 인지적 과정을 중시하여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다. 그런데 어느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행동은 그 집단의 특성에 대한 신념인 고정관념보다는 감정적인 요인들에 의해 더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 실상 Jussim, Nelson, Manis와 Soffin(1995)은 이제까지 관련 학계에서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의 영향을 무시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연구 결과, 한 개인에 대한 편견은 그 사람이 속한 집단(즉, 정신분열증 환자 혹은 동성애자)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보다는 그 집단을 얼마나 좋아하는가에 의해 더욱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또한 Stangor, Sullivan과

\* 이 연구의 일부는 1999년도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해, 그리고 일부는 1997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대학교수 해외파견연구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이 연구의 연구 1의 자료 수집을 위해 애써 주신 UC Santa Barbara의 Hamilton교수께 감사드립니다.

Ford(1991)는 9 인종 집단(미국인, 아시아인, 유태인, 흑인 등)에 대한 태도가 그들에 대한 특성평가의 호의성보다는 감정의 호의성에 의해 보다 영향받았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어느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는 인지적 요인(즉, 고정관념)과 감정적 요인(즉, 호감도) 양자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끌어내어 지는 중요한 연구 과제는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집단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의 영향이 더 중요해 지고 어떠한 다른 상황에서 감정의 영향이 더욱 중요해 지느냐의 문제이다. 한가지 가능성은 지각자의 집단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외집단에 대해서, 혹은 지각자가 보다 뚜렷한 감정을 발전시키고 있는 집단(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지역 집단 혹은 미국의 인종 집단)에 대해서는 감정의 영향에 의한 편견이 나타날 것이고, 반면, 뚜렷한 반목관계나 대립의식이 발전되어 있지 않은 집단 성원에 대해서 혹은 어떤 뚜렷한 감정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집단 성원(예를 들어, 남녀 집단)이나 혹은 양가적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그 집단에 대한 신념이 보다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다. 혹은 같은 대상 집단에 대해서도 아직 그 반목의 역사가 짧고 접촉 경험이 적은 초기 접촉에서는 편견적 판단은 보다 신념의 영향을 받지만 후에 대립과 반목의 접촉이 벌어지면 감정에 의해 판단이 보다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김혜숙, 1999). 이러한 가정은 고정관념과 인지가 편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많은 연구가 실험실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한 남녀 집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뚜렷한 감정적 선호를 발전시키지 않고 있어 편견적 판단이 주로 남녀 집단에 대한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으리라는 가정을 뒷받침해 주는 연구 결과가 Eagly, Mladinic과 Otto(199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녀 집단에 대한 판단이 집단에 대한 호감도보다는 신념에 의해 영향받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실생활에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반목의 내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예를 들어, 미국의 인종 집단)에 대한 편견 감소의 방법은 주로 접촉을 통한 태도 혹은 감정의 변화가 효과적임을 보인 연구들(Cook, 1984; Wright, Aron, McLaughlin-Volpe

와 Ropp, 1997)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도 위의 가정을 지지해 준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Jussim 등(1995)의 연구에서도 정신분열증 환자나 동성애자와 같이 보다 뚜렷한 감정이 발전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편견적 판단이 신념보다는 감정에 의해 보다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 주었다.

위에서 가정한대로 여러 유형의 편견이 그 인지와 감정의 근원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면, 그러한 상이한 편견의 감소 방안도 그 근원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 강하게 개입된 집단 성원에 대한 편파된 판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성원에 대한 왜곡 판단의 근원이 다르고(즉, 감정과 고정관념) 따라서 그러한 편파된 판단의 수정이나 감소 방안도 달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가정한대로 성편견의 경우와 같이 보다 신념에 근거한 편견에 대해서는 고정관념 불일치정보에 접하도록 함으로써 신념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Weber와 Crocker, 1983)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인종편견이나 우리 나라의 지역편견(고흥화, 1989; 김진국, 1987; 김혜숙, 1988)과 같이 보다 감정에 근거한 편견의 경우에는 집단간의 친밀한 접촉이나 소수집단 성원에 대한 감정이입(Batson, Polycarpou, Harmon-Jones, Imhoff, Mitchener, Bednar, Klein과 Highberger, 1997)등이 편견감소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다양한 편견의 유형(즉, 인종, 성, 지역, 남북한)에 대한 비교 문화적 분석은 감정적, 혹은 인지적 근원에 있어 다양하게 변화하는 편견들을 포함시켜 비교 검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즉, 서로 다른 유형의 편견들이 그 근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역사적, 사회적으로 오랜 갈등을 겪은 집단 간에는 감정적인 개입에 의한 편견이 형성되어 있고, 반면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집단이나 경쟁적 개입이 없는 집단간의 편견은 보다 인지(혹은 고정관념)에 기초한다는 가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편견들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의 편견들을 포함시켜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 과정의 일반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편견의 비교 문화적 분석은 드물어 문화에 따라 편견과정이 달라지는 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편견은 민권

운동의 영향이나 노골적 편견 표현에 대한 부정적 사회 규범의 형성 등의 영향에 의해 강한 감정적 편견보다는 긍정적 감정의 부족이나(Pettigrew와 Meertens, 1995)인 지나 고정관념에 근거한 편견일 수 있는 반면 우리의 지역편견의 경우에는 보다 강한 감정적 근원에 기초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는 또한 미국과 우리 나라의 주요한 편견들에 대해 그 인지와 감정적 근원을 밝혀 준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 주제는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 진 바가 없고, 편견적 판단과 행동의 근원 기제를 밝히고 또한 편견의 과정에 있어서의 비교 문화적 검토를 하는 작업이므로 그 이론적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연구주의에 근거한 여러 집단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하게 응용될 수 있어 그 현실적·실제적 의미도 매우 크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어떤 집단에 속하는 개인의 행동을 사람들이 판단함에 있어 편견적 판단이 나타나는지(예를 들어, 호남사람의 주장적 행동에 대해 충청사람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보다 더욱 주장적이라고 판단함)를 검토하고, 이러한 편견적 판단이 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하는지 혹은 감정에 근거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성편견, 인종편견, (연구 1) 그리고 우리 나라의 성편견(연구 2)과 지역편견(연구 2)의 편견 유형들을 검토할 것이다.

### 연구 1

연구 1에서는 미국의 성 편견과 인종 편견에 개입되어 있는 감정과 인지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보다 강한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인종편견의 경우에는 한 개인에 대한 편견적 반응이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감정에 보다 근거하여 판단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편, 감정이 별로 개입되어 있지 않은 성편견의 경우에는 대상인물의 성집단에 대한 감정보다는 인지와 신념에 보다 영향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토하고자 연구 1에서는 우선 성편견

이나 인종편견이 과연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고, 그런 다음 만약 그러한 유형의 편견적 판단이 존재하면, 그것이 대상이 소속된 집단에 대한 감정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인지에 근거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 방 법

**연구참여자**와 **실험 설계**. 실험1에는 총 149명의 미국 대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의 재학생들로서 심리학개론 수강생들이었다. 이중 73명(남자 42명, 여자 31명)은 인종편견과 그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76명(남자 47명, 여자 29명)은 성 편견과 그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설계는 인종 편견에 관한 실험의 경우 2(인종: 히스패닉 대 아시안) × 2 (행동유형: 중립적 행동 대 공격적 행동) × 2 (행동의 순서: 공격 - 중립 순 대 중립 - 공격 순) 이었고, 성 편견 실험의 경우 인종 변인 대신 성(여성 대 남성) 변인이었다. 이중 두 번째 변인(즉, 행동유형)은 피험자 내 변인이었으며 다른 두 변인은 피험자 간 변인이었다.

**실험 책자**. 연구 1의 실험 책자는 먼저 실험의 목적에 대해 인상 형성 실험이라고 소개하였다. 그 다음 어떤 인물의 행동에 대한 간단한 문장이 나오고 다음 그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 평정 척도(9점 척도)가 포함되었다. 그 다음 또 다른 인물에 대한 행동기술문이 제시되었고 그에 대한 인상 평정 척도가 제시되었다. 대상인물은 이름으로 히스패닉계 미국인 (예: Carlos Ramirez) 혹은 아시안계 미국인 (예: Cheong-Fong Kao)으로 변화시켰다. 대상인물에 대한 행동기술문은 공격적 행동 (예: Juan Martinez yelled at his wife 혹은 Carlos Ramirez complained to a store manager about the quality of a product)이거나 혹은 중립적 행동(예: Yesterday, Cheong-Fong Kao went to get his haircut 혹은 Kuo Shu Yang recently bought the latest book of a bestselling author)에 대한 기술문이었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공격행동은 히스패닉계 혹은 남성의 고정관념적 행동으로 지각되었다고 지적하여(Bodenhausen와 Wyer, 1985; Krueger와 Rothbart, 1988) 이 행동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행동기술문들은 이전의 연구(Krueger와

Rothbart, 1988)에서 사용된 기술문들이었다. 한 실험책자는 어느 한 인종에 속하는 두 대상인물의 중립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에 대한 기술문들을 포함하였고, 그 제시 순서는 공격적 행동과 중립적 행동을 전후로 균형잡았다(counterbalancing). 각각의 행동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기술문들이 사용되었다. 인상 평정은 각 대상 인물이 얼마나 공격적인가, 좋아할 만한가, 지적인가 그리고 미래에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 9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음 대상인물이 속한 집단 범주의 특징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념과 호감도를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각 집단 범주의 특징에 대한 신념을 묻는 문항은 각 집단(예를 들어, 히스패닉계 미국인 혹은 여성)의 몇 %가 공격적인가를 묻는 문항과 각 집단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9점 척도 상에서 표시하도록 묻는 두 문장으로 이루어 졌다. 또한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각 집단 사람들이 얼마나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지를 묻는 두 문항이 포함되었다. 각 집단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문항들은 두 문항으로, 일반적으로 이 집단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대해 9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또한 일반적으로 이 집단 사람들이 얼마나 칭송할(admirable) 만하느냐를 9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나이, 성 그리고 인종 배경을 응답하도록 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성 편견에 대한 실험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동일하였으나 대상인물의 이름으로 남성(예: John) 혹은 여성(예: Susan)을 표시하였고, 집단 범주에 대한 질문도 그에 따라 변화시켰다.

**절차.** 참여자들은 집단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실험의 목적은 인상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지시하였고, 무선 배정에 의해 정해진 책자를 배부하였다. 그리고 책자를 주어진 순서대로 읽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실험자는 실험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사후 설명을 하고 실험을 종료하였다.

**결과 및 논의**

실험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의 분석을 하였다. 우

선, 집단 범주에 의한 편견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행동 기술문에 대한 인상 평정이 대상 인물이 속한 범주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변량분석하였다. 그 결과 편견적 판단이 발견되면 그 다음의 분석을 진행시켰다. 즉, 편견적 판단을 집단 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얼마나 잘 예언해 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 변인인 집단 범주의 특성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집단 범주에 따라 다른지를 2원 변량 분석(2(집단) × 2(순서))하였다. 성 편견 실험과 인종 편견 실험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다.

**1) 성편견 실험 결과**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 평정.**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 평정은 대상인물이 얼마나 공격적인가, 지적인가, 좋아할 만한가, 그리고 미래에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평정들이었다. 각 종속 측정에 대해 먼저 연구참여자의 성(2) × 대상인물의 성(2) × 행동 유형(2) × 순서(2)의 4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의 성의 주효과와 연구참여자의 성과 다른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3원 변량분석(대상인물의 성(2) × 행동 × 순서)을 하고 이를 여기에 보고하였다. 그 결과, 먼저 공격성에 대한 평가의 경우, 대상인물의 성과 행동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F(1, 69)=6.1, p<0.02$ .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대상인물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는 남성 대상 ( $M=5.38$ )을 여성 대상( $M=4.78$ )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평가하였으나,  $F(1, 69)=4.38, p<0.05$ , 중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대상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69) < 1$ .

표 1. 대상인물의 성 집단과 행동유형에 따른 공격성 평가와 미래 공격성 평가 평균 (연구 1)

		공격성 평가	미래공격성 평가
남성	공격적 행동	5.38 (1.82)	5.89 (1.49)
	중립적 행동	4.97 (2.42)	5.43 (1.98)
여성	공격적 행동	4.78 (1.48)	5.29 (1.58)
	중립적 행동	5.28 (2.02)	5.71 (1.60)

주 1. 평가는 9점 척도(1=전혀, 9=매우)의 점수임.  
 2. ( )은 표준편차임. 이하 모든 평균 표에 해당됨.

이와 아울러, 제시순서의 주효과( $F(1, 69)=13.46, p<0.01$ )와 행동유형과 제시순서의 상호작용 효과( $F(1, 69)=127.7, p<0.01$ )가 나타났다. 이 상호작용 효과는 공격적 행동이 첫 번째 제시되었을 때 두 번째로 제시되었을 때보다 더 공격적으로 평가되었고( $M=5.64$  vs.  $4.54$ ) 중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시순서 효과가 더욱 뚜렷이 나타났음( $M=6.76$  vs.  $3.44$ )을 의미하였다.

다음, 미래의 공격성의 가능성에 대한 평정에 대한 분석은 행동유형과 대상인물의 성집단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F(1, 68)=4.77, p<0.05$ . 표 1에 그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이 상호작용은 공격성 평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격적 행동의 경우에는 남성 대상( $M=5.89$ )에 대해 여성 대상( $M=5.29$ )에 대해서보다 그가 미래에 더욱 공격적일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나( $F(1, 68)=4.38, p<0.05$ ), 중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대상의 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하였다,  $F(1, 68) < 1$ .

좋아할 만한 정도에 대한 평정에 대한 분석은 행동과 순서의 상호작용 효과( $F(1, 69)=12.21, p<0.01$ )와 대상의 성, 행동과 순서의 3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F(1, 69)=6.9, p<0.01$ . 이 상호작용 효과는 공격적 행동은 첫 번째 제시되었을 때 나중에 제시되었을 때보다 좋아할 만하다는 평가가 더 작았고, 반면 중립적 행동은 첫 번째 제시되었을 때 두 번째 제시되었을 때보다 좋아할 만하다는 평가가 더 컸음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원 상호작용 효과는 남성 대상일 경우에 여성 대상인 경우보다 더 뚜렷이 나타났음을 의미하였다. 대상이 지적인 정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분석은 순서( $F(1, 69)=9.88, p<0.01$ ), 순서와 행동의 상호작용( $F(1, 69)=6.39, p<0.02$ ) 효과, 그리고 성집단, 행동과 순서의 3원 상호작용 효과( $F(1, 69)=12.14, p<0.01$ )가 나타났다. 이 상호작용도 공격적 행동은 첫 번째 제시되었을 때 두 번째 제시되었을 때보다 덜 지적이라고 평정되었으나, 중립적 행동은 첫 번째 제시되었을 때와 두 번째 제시되었을 때의 지적인 정도의 평가 점수가 비슷하였음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대상이 남성이었을 때 여성이었을 때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대로, 사람들이 대상의 동일한 공격적 행동에 대해 그가 남성일 경우 여성인 경우보다 더 공격적이고 또한 미래에도 공격적이 될 것이라고 평

가하는 편견적 판단이 나타났음을 보여 주었다. 즉, 대상이 속한 성 범주에 의거하여 동일한 행동을 더욱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편견적 판단이 나타났다.

**집단범주에 대한 평가.** 집단 범주의 특성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 평가에 대해 각각 2(집단범주) × 2(행동의 순서) 분석을 하였다. 먼저, 대상 집단 사람들 중 공격적인 사람들의 %를 추정하게 한 추정치에 대한 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 $F(1, 67)=23.23, p<0.01$ )가 나타났고, 또한 대상 집단 사람들의 일반적 공격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도 집단의 주효과를 얻었다( $F(1, 69)=38.54, p<0.01$ ). 이는 예상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으며(70.9% 대 49.3%)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일반적으로 더 공격적이라고 ( $M=6.89$  대 4.89) 평가되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대상 집단의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며 칭송할 만하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두 평가 모두에서 집단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F(1, 69)=7.69, p<0.01$ , 좋아할 만함,  $F(1, 68)=13.59, p<0.01$ , 칭송할 만함). 즉, 응답자들은 여성을 남성보다 더 좋아한다고 평가하였으며 ( $M=7.83$  대 7.00), 또한 더 칭송할만 하다고 평가하였다( $M=7.44$  대 6.22).

요약하면, 사람들은 남성집단이 여성집단보다 일반적으로 더 공격적이라고 믿으며, 또한 여성집단을 남성집단보다 더욱 좋아하였다.

**회귀분석.** 집단범주에 속한 사람들의 공격성에 대한 두가지 평가(즉, % 추정과 9점 척도 평가)를 각각 표준화하여 그 표준화 점수들의 평균 점수를 집단범주 사람들의 공격성에 대한 평정치로 삼았다. 또한 집단범주 사람들에게 대한 두가지 호감도 평가도 표준화하여 그 평균을 구하였다. 그런 다음, 대상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 중 집단에 따른 편견적 평가가 유의미하였던 두 가지 종속 측정 - 공격성 평가와 미래의 공격성 평가 - 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은 공격적 행동과 중립적 행동에 대한 평가 각각을 기준 변인으로 하여, 과연 이러한 기준 변인이 대상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더 잘 예언되는가 혹은 호감도에 의해 더 잘 예언될 수 있는가를 회귀분석하였다.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먼저 공격적

행동에 관한 공격성 평가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대상집단을 더 좋아할수록 덜 공격적으로 평가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 $\beta = -0.25, p < 0.05$ ), 대상집단의 공격성에 대한 신념은 대상 인물에 대한 공격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beta = 0.01, p > 0.1$ ). 대상인물이 앞으로 얼마나 공격적으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아무런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표 2. 성 집단에 대한 호감도와 신념이 대상인물의 행동에 대한 공격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미국의 경우 (연구 1)

	공격행동( $\beta$ )	중립행동( $\beta$ )
성 집단에 대한 호감도	-0.25*	-0.0
성 집단에 대한 신념	0.01	0.13

\*  $p < 0.05$

이러한 결과는 먼저, 미국의 연구참여자들은 동일한 행동에 대해 대상이 속한 성집단에 따라 더 공격적으로 혹은 덜 공격적으로 지각하는 편견적 판단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Krueger와 Rothbart(1988)의 결과를 반복하는 결과로 한 개인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행동자체보다는 집단 범주가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의 회귀 분석 결과는 가설과는 반대로,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성 편견적 판단이 남성 혹은 여성 집단 일반의 공격성에 대한 신념보다 남성 혹은 여성 집단에 대한 호감도에 의해 보다 영향받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한 개인이 동일한 공격적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가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에 비해 더 공격적이라고 판단되었고, 이러한 판단은 그가 속한 성 범주에 대한 호감도에 의해 보다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대하지 못하였던 결과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성에 의거한 편견적 판단은 성 집단에 대한 호감도보다는 고정관념적 신념에 의해 결정되라는 가설을 검토하였는데, 이러한 가설은 실상 사람들이 여성 혹은 남성에 대해 다른 고정관념을 가지지만 호감도의 차이는 없으리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미국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집단에 대해 남성집단에 대해서보

다 더 좋아할 만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호감도가 남자 혹은 여자에 대한 편견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는 또한 Eagly 등(1994)이 발견한 결과 - 즉, 여성 혹은 남성 집단에 대한 태도판단이 그들 집단에 대한 감정보다는 신념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결과 - 와도 다르다. 물론 Eagly 등(1994)의 연구는 남녀 집단 일반에 대한 판단이 각 집단에 대한 신념과 감정에 의해 어떻게 영향받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반면 본 연구는 이와 달리 한 개인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있었다. 또한 그들의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스스로 각 집단에 대해 자아낸 신념과 감정을 측정하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구체적 행동이 연구자에 의해 주어지고 이를 일정한 척도상에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주어진 고정관념 평가와 감정의 영향을 평가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성편견적 판단은 판단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즉, 한 개인이 행하는 과제관련 행동에 대한 성편견적 판단은 성집단에 대한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호감도보다 더욱 영향을 미치고, 반면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공격적 행동 등의 성격적 특성에 대한 성 편견적 판단은 성범주에 대한 호감도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인종편견 실험 결과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 평정.** 성편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원 변량분석 - 대상의 인종(2) × 행동 유형(2) × 순서(2)을 인종(히스패닉 대 아시아인) 편견 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상 인물의 인종에 따른 아무런 유의미한 결과도 얻지 못하였다 (공격성 평정  $F(1, 69) = 1.06, p > 0.1$ ; 미래 공격성 평정  $F(1, 69) = 1.77, p > 0.1$ ). 따라서 대상인물의 인종에 따른 편견적 판단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추후 분석(집단 범주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진행시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인종 집단에 대한 공격성 평가(%평가와 척도 평가)와 호감도 평가(얼마나 좋아할 만한가, 얼마나 칭송할 만한가)와, 대상인물에 대한 공격성 평가 점수와 미래 공격성 평가 점수와와의 상

관계수를 구해 보았다. 그 결과, 대상인물의 중립적 행동에 대한 미래 공격성 평가가 대상 인물의 성집단에 대한 공격성 % 평가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 $r=0.17, p<0.05$ ). 그 외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인종에 의거한 편견적 판단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의 인종 편견이 최근 들어 적어도 겉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고 간접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만이 표현되고 있다는 주장들(Pettigrew & Meertens, 1995; Sears & Kinder, 1971)을 재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들에서는 간접적으로 편견을 측정하는 방법 - 예를 들어, 자동과정 측정 방법이나 IAT 기법(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등의 내현 반응 측정 기법 - 을 사용하여 인종 편견을 측정하고 그에 대한 범주 관련 신념과 호감도의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구 2

연구 2에서는 한국의 실험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성 편견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즉, 성 범주에 따라 대상 인물의 동일한 행동을 다르게 판단하는지(즉, 편견적 판단), 그리고 만약 그러한 편견적 판단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성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거한 것인지 혹은 호감도에 근거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2의 가설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 범주에 근거한 편견적 판단은 성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에 보다 근거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은 남성 혹은 여성에 대해 특별히 선호의 감정을 발전시키지 않고 있는 반면, 고정관념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방 법

**연구참여자 및 실험설계.** 아주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68(남녀 각 84명)이 성 편견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심리학 개론 수강생들로 3 - 12명씩 집단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설계는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동일하였다: 대상의 성 범주(2: 남성 혹은 여성) × 행동유형(2: 중립적 행동 대 공격적 행동) × 행동제시 순서(2). 이중 두 번째 변인은 피험자내 변인

이었고 나머지 변인들은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실험책자.** 연구 2의 실험 책자는 연구 1과 대부분 동일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행동기술문들에 대한 지각에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예비연구를 실시하여 연구 1에서 사용된 기술문들과는 다른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행동기술문들을 선정하였다. 이 예비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28개의 행동기술문들을 제시하고 그 공격적인 정도를 평정하게 하여, 그 결과 2개의 공격적 행동기술문과 2개의 중립적 기술문들을 선정하였다. 공격적 행동 기술문들은 “스쿨 버스 줄에 끼어 드는 사람에게 뒤로 가라고 했다”와 “야구장에서 옆 사람이 응원하는 팀을 욕했다”이었고, 중립적 행동기술문들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았다”와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했다”이었다.

대상인물의 성은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름(예: 영숙 혹은 민호)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두명의 여성 혹은 남성에 대한 행동기술문을 읽도록 한 연구 1과는 달리 연구 2에서는 한 실험참여자가 네 명의 다른 여성 혹은 남성의 행동에 대한 기술문을 읽었다. 이 행동기술문들은 두 개의 공격적 행동과 두 개의 중립적 행동을 묘사하고 있었다. 이 행동들은 무선으로 선정된 6가지 다른 순서로 변화되었다. 그 외에 종속 측정 질문과 집단 범주에 대한 문항들은 모두 연구 1과 동일하였으나, 집단범주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두 문항 중 한 문항을 ‘그 집단 사람들 중 좋아할만한 사람들의 %’를 추정하도록 하여 집단범주에 대한 공격성 평정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절차.** 연구 2의 실험 절차는 연구 1과 동일하였다.

## 결과 및 논의

연구 2의 분석은 연구 1과 동일하였다. 즉, 성 집단 범주에 의한 편견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행동 기술문에 대한 인상 평정이 대상 인물이 속한 성 범주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3원 변량분석(2(대상의 성) × 2(행동유형) × 2(행동의 제시순서))하였다. 이중 두 번째 변인은 피험자내 변인이었고 나머지 변인

들은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두 개의 동일한 특성(즉, 공격성 혹은 중립)을 나타내는 행동에 대한 평가는 평균하여 그 평균점수를 자료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편견적 판단이 발견되면 그 다음의 분석을 진행시켰다. 즉, 편견적 판단을 집단 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얼마나 잘 예언해 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 변인인 성 집단 범주의 특성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집단 범주에 따라 다른지를 2원 변량 분석(2(연구참여자의 성) × 2(대상의 성))하였다.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 평정.** 대상인물이 얼마나 공격적인가, 지적인가, 좋아할 만한가, 그리고 미래에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 3원 변량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이 공격적인 정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 1의 결과와 유사하게 대상의 성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F(1, 156)=5.14, p<0.05$ . 이는 동일한 행동일지라도 대상이 남성( $M=5.23$ )이면 여성( $M=4.85$ )인 경우보다 더욱 공격적이라고 평가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에 대상의 성에 따른 공격성 평가 평균이 나타나 있다. 또한 행동유형의 주효과( $F(1, 156)=451.06, p<0.01$ )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격적 행동( $M=6.59$ )을 중립적 행동( $M=3.50$ )보다 더욱 공격적이라고 평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 외에 순서의 주효과( $F(5, 156)=6.77, p<0.05$ ) 그리고 행동유형과 순서의 상호작용 효과( $F(5, 156)=5.55, p<0.01$ )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공격적 행동에 대한 공격성 평가가 중립적 행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보다 그 제시 순서에 의한 차이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표 3. 대상인물의 성 집단과 행동유형에 따른 공격성 평가 평균: 한국의 경우 (연구 2)

		공격성 평가	미래공격성 평가
남성	공격적 행동	6.79 (1.29)	6.81 (1.15)
	중립적 행동	3.68 (1.55)	4.29 (1.34)
여성	공격적 행동	6.39 (1.47)	6.69 (1.16)
	중립적 행동	3.31 (1.69)	3.89 (1.52)

앞으로 대상이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 평정에 대한 변량분석은 대상의 성의 효과가 유의미한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며,  $F(1, 156)=3.28, p<0.08$ , 또한 행동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F(1, 156)=395.0, p<0.01$ . 이러한 결과는 대상이 남성일 때( $M=5.55$ ) 여성일 때( $M=5.29$ )보다 앞으로도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또한 공격적 행동을 하는 대상( $M=6.75$ )에 대해 중립적 행동을 하는 대상( $M=4.09$ )에 대해서 보다 앞으로 더 공격적이라고 평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표 3에 대상의 성에 따른 미래 공격성의 평가 평균이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유형과 제시순서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5, 156)=3.20, p<0.01$ ). 이 상호작용도 공격적 행동에 대한 평가가 중립적 행동에 대한 평가보다 그 제시 순서에 의해 더 많이 영향받았음을 나타내었다.

대상이 지적인 정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변량분석은 행동의 주효과( $F(1, 156)=86.97, p<0.01$ )를 나타내었다. 이는 공격적 행동( $M=4.56$ )이 중립적 행동( $M=5.47$ )보다 덜 지적으로 평가되었음을 보여 준다.

대상이 좋아할 만한 정도를 평가한 점수에 대한 변량 분석은 행동의 주효과( $F(1, 156)=57.08, p<0.01$ )만을 얻어, 공격적 행동을 하는 대상( $M=4.56$ )이 중립적 행동을 하는 대상( $M=5.27$ )보다 덜 좋아할 만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실험참여자와 비슷하게 한국의 대학생들도 대상이 속한 성범주에 근거하여 그가 남성일 경우 여성일 경우보다 더욱 공격적이고 또한 앞으로도 공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집단범주에 대한 평가.** 여성 일반 혹은 남성 일반의 공격성과 그들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추정과 9점 척도상의 평가에 대해 평가자의 성 × 대상의 성의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먼저 공격적인 사람들의 % 평가에 있어 대상의 성의 주효과( $F(1, 163)=107.13, p<0.01$ )가 나타났고, 또한 공격적인 정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대상의 성의 주효과( $F(1, 164)=151.31, p<0.01$ )와 평가자의 성의 주효과( $F(1, 164)=4.95, p<0.05$ )가 또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자들이 남성 집단( $M=$



56.8%) 일반 중에서 여성 집단( $M=29.4\%$ )중에서보다 일반적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공격적이라고 평가하였고, 또한 남성집단( $M=6.15$ )이 여성집단( $M=3.65$ )보다 일반적으로 더욱 공격적이라고 평가하였음을 나타내 준다. 또한 여성평가자들( $M=5.13$ )이 남성평가자들( $M=4.68$ )보다 남녀 집단을 더욱 공격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남녀 집단 중 좋아할만한 사람들의 % 추정에 대한 분석은 평가자의 성의 주효과가 나타나,  $F(1, 163)=4.34$ ,  $p<0.05$ , 여성평가자( $M=52.1\%$ )가 남성평가자( $M=46.1\%$ )보다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의 경우와 달리 성 범주에 대한 호감도 평가(%추정과 척도 평가)에 있어 대상의 성의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가정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녀 집단의 공격성에 대한 신념은 발전시키고 있지만 뚜렷이 어느 성 집단을 선호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회귀분석.** 대상의 성의 주효과가 나타난 공격성 평가에 대해 성집단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가설과는 달리 성집단에 대한 호감도가 신념보다 대상에 대한 공격 행동을 더 잘 예언해 주었다( $\beta=0.14$ ,  $p<0.07$ ). 이러한 결과는 대상인물이 속한 성범주에 대한 호감도가 대상에 대한 공격성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미국대학생들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달리 집단호감도와 공격성 평정이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4. 대상인물의 성 집단에 대한 호감도와 신념이 공격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한국의 경우 (연구 2)

	공격행동( $\beta$ )	중립행동( $\beta$ )
성 집단에 대한 호감도	0.14 <sup>1</sup>	-0.10
성 집단에 대한 신념	0.12	0.08

<sup>1</sup>  $p<0.07$

요약하면, 연구 2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상이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에

비해 동일한 행동을 더 공격적이라고 평정하여 성편견적 판단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평정은 대상이 속한 성집단에 대한 호감도에 의해서 예언될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즉, 대상이 속한 성범주를 좋아할수록 대상을 더 공격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연구 1에서 미국 대학생들도 대상의 성에 따라 공격성 평정을 보이는 성 편견적 판단을 나타내었으나, 성 집단에 대한 호감도는 공격성 평정과 역의 관계를 나타냈다. 즉, 미국의 대학생들은 대상이 속한 성범주 집단을 좋아할수록 그를 덜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미국의 대학생들과 달리 대상이 속한 성범주를 좋아할수록 그가 더욱 공격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연구 2에서 사용한 행동기술문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연구 2에서는 공격적 행동으로 “스쿨 버스 줄에 끼어드는 사람에게 뒤로 가라고 했다”와 “야구장에서 옆사람이 응원하는 팀을 욕했다”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술문들은 예비조사에서 공격성을 평정하도록 하여 선정된 문장들이었다. 그러나 이 행동들은 공격적인 행동이기도 하지만 ‘주장성’에 가까운 행동들로서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 대상인물의 ‘공격성’ 평가는 폭력적 공격성보다는 주장적 의미의 공격성 평가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대상에 대한 공격성 평가는 대상이 속한 성 범주 집단을 좋아할수록 더욱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구 1에서 사용된 공격 행동 기술문은 “부인(혹은 남편)에게 소리쳤다”와 “가게 운영자에게 불평했다”로 보다 부정적인 공격 행동들이었다. 따라서 대상인물의 공격성 평정은 대상이 속한 성범주집단에 대한 호감도에 의해 부적으로 영향받았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 연구 3

연구 3에서는 한국의 지역 편견에 대해 실험하였다. 즉,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도 대상이 속한 지역 범주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지역편견적 판단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그러한 지역근거 판단이 지역범주에 대한 호감도에 의해 더 잘 예언될 수 있는지 혹은 지역범

주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보다 잘 예언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3의 구체적 가설은 지역편견적 판단은 대상이 속한 지역범주에 대한 신념보다는 호감도에 의해 보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및 실험설계.** 아주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25명이 지역편견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심리학 개론 수강생들로 3-12명씩 집단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설계는 지역범주(3: 호남, 영남 대 충청) × 행동유형(3: 주장적 행동, 배타적 행동 대 중립적 행동) × 행동제시순서(6)의 설계로 두번째 변인은 피험자내 변인이고 나머지 변인들은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실험 책자.** 연구 3의 실험 책자는 우선 참여자들에게 6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프로필을 읽은 다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그들이 이 실험에서 하게 될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책자는 6명의 다른 대상 인물들의 행동을 기술하고 각각의 대상에 대해 여섯 가지 다른 평가를 하도록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대상인물들은 호남 출신, 영남 출신 혹은 충청 출신들이었는데, 어느 한 참여자가 읽은 책자에 포함된 여섯 명의 대상인물들은 모두 한 지역 출신으로 기술되었다. 한 대상인물은 주장적이거나(예: “민호는 올해 나이 스물 두 살로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전라도 광주 출신이다. 그는 지난여름에 친구들이 MT를 같이 가지고 설득했는데도, 가고 싶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았다”) 배타적이거나(예: 영호는 올해 나이 스물 살로 현재 대학 1학년 학생이며, 전라도 목포 출신이다. 영호는 오랜만에 모인 향우회에 참석했는데, 자기보다 늦게 서울에 올라온 고향 친구가 표준말을 쓰자, 고향 사투리를 빨리 잊어버렸다며 그 친구를 책망했다) 혹은 중립적인 행동(예: “수호는 올해 나이 스물 다섯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며, 전라도 목포 출신이다. 그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책상 위의 책을 책꽂이에 꽂고 방안을 청소했다”)으로 묘사되었다. 이 특성들은 이전의 연구(김혜숙, 1993)에서 충청사람들보다 호남사람들 그리고 영남사람들의 특성으로 지각된 특성들이다. 각각의 특성을 나타내는 행동기술문들은 예비 연구에서

각 행동이 얼마나 주장적인지, 배타적인지 혹은 중립적인지를 평가하도록 하여 얻은 행동기술문들이었다. 각각의 행동에 대해 두 가지 다른 행동기술문들을 선정하였다.

각 대상 인물에 대한 평가 차원은 주장성, 배타성, 좋아할 만한 정도, 지적인 정도, 미래의 주장성 및 미래의 배타성의 여섯가지 차원으로 각각에 대해 9점 척도(전혀 - 매우)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되었다. 각 대상인물에 대한 평가 다음에는 각 지역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각 지역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추정과 9점 척도 상에서의 평가의 두가지지를 하도록 하였다. 평가 차원은 각 지역 사람들이 지적인 정도, 주장적인 정도, 배타적인 정도 그리고 좋아할 만한 정도의 네가지 차원이 포함되었다. 실험 책자의 맨 마지막 쪽에는 실험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과 실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적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나이, 성별 및 출신지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절차.** 실험 절차는 실험 1과 실험 2의 절차와 동일하였다.

#### 결과 및 논의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 평정.**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 평가에 대한 분석은 3(지역: 영남, 호남 대 충청) × 6(제시순서) × 3(행동유형: 주장적 행동, 배타적 행동 대 중립적 행동)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중 앞의 두 변인은 피험자간 변인이었고 마지막 변인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그 결과, 우선 주장성 평가에 있어 지역의 주효과( $F(2, 107)=3.27, p<0.05$ )와 행동의 주효과( $F(2, 214)=103.39, p<0.01$ )가 나타났다. 지역의 주효과와 행동의 정확한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각 두 지역간의 평균에 대해 비교분석한 결과 어느 두 지역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지역 별 대상인물의 주장성에 대한 평가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영남사람들과 호남사람들이 충청사람들보다 더 주장적이라고 평가되었다. 행동의 주효과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주장적 행동( $M=7.10$ )이 배타적 행동( $M=5.66; F(1, 214)=90.63, p<0.01$ )이나 중립적 행동보다( $M=4.97; F(1, 214)=198.3, p<0.01$ ) 더욱 주장적이라고 평가되었

음을 보여 주었다.

표 5. 대상인물의 지역집단 별 주장성 평가와 지적 특성 평가의 평균 (연구 3)

	주장적 행동	배타적 행동	중립적 행동	전 체
<b>주장성 평가</b>				
영남	7.06 (1.19)	5.90 (1.45)	5.06 (1.21)	6.01 (1.28)
호남	7.30 (0.99)	5.98 (1.53)	5.08 (1.64)	6.12 (1.39)
충청	6.93 (1.15)	5.11 (1.69)	4.78 (1.55)	5.61 (1.46)
<b>지적 특성 평가</b>				
영남	5.29 (0.97)	4.20 (1.13)	5.48 (0.81)	4.99 (0.97)
호남	5.33 (0.96)	4.39 (1.01)	5.58 (0.89)	5.10 (0.95)
충청	4.83 (0.95)	3.94 (1.20)	5.40 (0.98)	4.72 (1.04)

다음, 배타성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 행동의 주효과( $F(2, 214)=155.44, p<0.01$ )가 나타났다. 각 두 행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배타적 행동( $M=6.60$ )이 주장적 행동( $M=5.40$ )보다 더 배타적이라고 평가되었으며( $F(1, 214)=66.2, p<0.01$ ), 또한 중립적 행동( $M=4.02$ )보다 더 배타적이라고 평가되었다( $F(1, 214)=305.9, p<0.01$ ).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과 순서의 상호작용 효과( $F(10, 214)=1.9, p<0.05$ ), 그리고 행동, 순서와 지역의 3원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였다( $F(20, 214)=1.84, p<0.05$ ).

좋아할만한 특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행동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2, 214)=67.5, p<0.01$ . 이러한 주효과는 중립적 행동( $M=5.44$ )을 하는 대상인물이 배타적 행동( $M=4.03$ )이나 주장적 행동( $M=4.68$ )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보다 더욱 좋아할만하다고 평가되었음을 보여 주었다(각각  $F(1, 214)=142.8, p<0.01; F(1, 214)=41.5, p<0.01$ ).

지적 특성 평가에 대한 변량분석은 지역의 주효과( $F(2, 107)=3.46, p<0.05$ )와 행동의 주효과( $F(2, 214)=67.50, p<0.01$ )가 유의미하였다. 지역의 주효과에 대한 추후분석 결과 각 두 지역간의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를 얻지 못하였다(영남  $M=4.99$ ; 호남  $M=5.1$ ; 충청  $M=4.72$ ). 표 5에 대상인물의 출신지역별 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 평균이 나타나 있다. 행동의 주효과에 대한 추후 분석은 중립적 행동( $M=5.49$ )과 주장적 행동( $M=5.15$ )이 배타적

행동( $M=4.18$ )보다 더 지적으로 평가되었음을 나타낸다.

대상인물의 미래의 주장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행동의 주효과( $F(1, 214)=98.6, p<0.01$ )와 제시 순서의 주효과( $F(5, 107)=3.3, p<0.01$ )를 나타내었다. 행동의 주효과는 예상대로 주장적 행동을( $M=7.25$ ) 나타내는 대상에 대해 배타적 행동( $M=5.92$ )이나 중립적 행동( $M=5.32$ )을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보다 더욱 미래에 주장적이라고 평가하였음을 나타낸다(각각  $F(1, 214)=89.16, p<0.01; F(1, 214)=186.25, p<0.01$ ). 마지막으로, 대상인물의 미래의 배타성에 대한 평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행동의 주효과( $F(2, 214)=120.7, p<0.01$ )와 행동, 지역 그리고 순서의 3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20, 214)=1.83, p<0.05$ ). 행동의 주효과는 대상인물이 현재 배타적 행동을 할 경우( $M=6.65$ ) 주장적 행동을 하는 경우( $M=5.66$ )나 중립적 행동을 하는 경우( $M=4.41$ )보다 더욱 미래에 배타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평가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각각  $F(1, 214)=46.16, p<0.01; F(1, 214)=239.0, p<0.01$ ).

요약하면, 가설대로 주장성 평가와 지적 특성 평가에 있어서 대상인물의 출신지역에 따른 편견적 판단이 나타났다. 각 두 지역 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평균은 영남과 호남사람들이 충청사람들보다 더 주장적이고 지적이라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집단범주의 특성에 대한 평가.** 각 집단(지역)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적인가, 주장적인가, 배타적인가 그리고 좋아할 만한가에 대해 참여자들이 평가하였다. 각각의 측면에 대해 그 집단 사람 중 몇 %의 사람들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 추정과 그 집단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가를 9점 척도상에서 평가하는 두가지 평가 방식이 포함되었다. 각각의 평가에 대해 지역의 효과를 평가하는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선 % 평정에 대해 지적 특성( $F(2, 119)=3.75, p<0.05$ ), 주장성( $F(2, 119)=14.41, p<0.01$ ), 그리고 배타성( $F(2, 119)=20.03, p<0.01$ ) 평가의 지역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선호도( $F(2, 119)<1$ ) 평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6에 각 평정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은 영남사람들과

호남사람들이 충청사람들보다 더 지적이고 주장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평가하였다. 9점 척도상의 평가도 % 평정에 대한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지적 특성 평가, 주장성 평가 및 배타성 평가에 있어서 유의미한 지역 주효과가 나타났다(각각 순서대로,  $F(2, 119)=3.55, p<0.05, F(2, 119)=24.35, p<0.01, F(2, 119)=21.49, p<0.01$ ). 선호도 평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각 지역 집단에 대한 특성 평가 평균 (연구 3)

	영남	호남	충청	유의미성
지적 %	45.2	50.6	40.7	*
주장적 %	58.8	64.4	46.1	**
배타적 %	56.7	60.8	37.8	**
선호 %	52.7	52.6	55.6	n.s.
지적 특성 평가	4.7	5.4	4.7	*
주장성 평가	6.12	6.74	4.76	**
배타성 평가	5.98	6.38	4.24	**
선호도 평가	5.52	5.21	5.73	n.s.

\*  $p<0.05$  \*\*  $p<0.01$

**회귀분석.** 각 지역 대상인물에 대한 편견적 판단이 과연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지 혹은 지역인에 대한 감정에 보다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장성 평가와 지적 특성 평가를 각각 기준 변인으로 하고 각 지역 사람들의 주장성의 특성에 대한 신념(% 추정과 9점 척도 평가 점수를 각각 표준화하여 평균함)과 각 지역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 평가(% 평가와 9점 척도 평가 점수를 각각 표준화하여 평균함)를 예인 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은 대상인물의 주장적 행동, 배타적 행동 그리고 중립적 행동에 대한 평가의 세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대상인물에 대한 주장성 평가의 경우, 대상인물의 주장적 행동에 대한 평가는 지역집단 사람들의 주장적 특성에 대한 지각(즉, 신념)에 의해 유의미하게 예인되었다. 배타적 행동에 대한 회귀분석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중립적 행동의 주장성에 대한 평가는 대상 지역집단에 대한 호감도에 의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았다. 표 7에 각 행동에 대한 주장성 평가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7. 지역집단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대상의 각 행동에 대한 주장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구 3)

	주장적 행동 $\beta$	배타적 행동 $\beta$	중립적 행동 $\beta$
호감도	0.04	-0.03	0.30**
신념	0.20*	0.18	0.08
R <sup>2</sup>	0.04	0.03	0.10*

\*  $p<0.05$  \*\*  $p<0.01$

대상인물의 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의 경우, 대상인물의 중립적 행동에 대한 지적 특성 평가에 대해 대상 지역 집단이 지적인 정도에 대한 신념과 대상 지역 집단에 대한 호감도가 둘 다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었다. 이 회귀분석표가 표 8에 나타나 있다.

표 8. 지역집단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대상의 각 행동에 대한 지적 특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구 3)

	주장적 행동 $\beta$	배타적 행동 $\beta$	중립적 행동 $\beta$
호감도	0.09	0.13	0.19*
신념	-0.01	0.04	0.23*
R <sup>2</sup>	0.01	0.02	0.12*

\*  $p<0.05$

이러한 결과는 연구 1과 연구 2의 성편견에 대한 연구 결과와는 달리, 대상인물의 주장적 특성에 대한 지역 편견적 판단은 대상 인물의 출신 지역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보다는 주장적인 정도에 관한 신념에 의해 보다 영향받았음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대상인물의 중립적 행동에 대한 주장성 평가의 경우에는 대상 지역 집단에 대한 호감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대상의 중립적 행동에 대한 지적 특성 평가의 경우에는 대상 인물이 소속된 지역 집단에 대한 호감도와 신념이 둘다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3의 결과는, 대상의 행동이 대상이 속한 지역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역

편견적 판단은 지역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보다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 가설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게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하나의 발견은 대상인물의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판단(주장성 판단에 있어서나 지적 특성 판단에 있어서나)은 지역 집단에 대한 호감도가 예언해 준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연구 3의 결과에 의거해서 내릴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은 지역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편견적 판단에 있어서는 고정관념이 호감도보다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지역 집단에 대한 호감도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편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과 감정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비교문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대립 집단으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인종 편견이나 우리나라의 지역 편견은 비슷하게 감정에 의해 보다 영향을 받을 것이고 반면 뚜렷한 차이있는 감정이나 대립적 감정의 내력을 가지지 않는 성편견의 경우에는 고정관념이나 신념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가설이 지지되지 못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오히려 가설과는 반대로 성편견적 판단은 개인이 속한 집단범주에 대한 호감도에 의해 보다 영향받고(연구 1, 연구 2) 지역 편견의 경우에는 개인이 속한 집단범주에 대한 신념에 의해 보다 영향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지역고정관념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행동(즉, 중립적 행동)에 대한 판단은 지역집단에 대한 호감도에 의해서 보다 잘 예언되었다(연구 3).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성 편견적 판단 과정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동일하게 보편적임을 보여 준다. 즉, 미국 대학생들이나 한국 대학생들이나 동일한 공격적 행동일지라도 대상이 남성이면 여성인 경우보다 더욱 공격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판단은 성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적 신념보다는 호감도에 의해 더 잘 예언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편견의 내용은 문화에 따

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과정은 문화에 상관없이 보편적일 수 있음을 지적해 준다. 한편, 한국의 지역편견적 판단에 대해서는 지역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호감도보다 더욱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성편견적 판단은 성범주에 대한 호감도가, 그리고 지역편견적 판단은 지역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이 보다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성범주나 지역범주에 대한 친숙도의 차이에 의해 설명해 볼 수 있다. 즉, 여성 혹은 남성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만, 지역집단에 대해서는 그러한 직접 경험이 많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3의 실험참여자들은 주로 서울이나 경기 출신이어서 호남, 영남 혹은 충청사람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교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친숙한 집단(즉, 성집단과 같은)에 대한 판단은 그 집단에 대한 호감도나 감정에 의해 보다 영향을 받고, 반면 직접 경험이 많지 않고 덜 친숙한 집단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들은 고정관념만이 판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위의 해석과 연관시켜, 본 연구 결과가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 사실을 설명해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 결과가 가설과는 다르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 가설의 기본 전제가 자료에 의해 지지되지 못했다는 데에 일부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상과는 달리 연구 1에서 미국 대학생들은 여성 집단을 남성 집단보다 더 좋아했고, 이에 따라 대상의 공격적 행동은 대상이 속한 성 집단에 대한 선호도에 의해 보다 잘 예언되었다. 또한 연구 3에서 예상과 달리 한국의 대학생들은 지역집단에 대한 신념의 차이는 보였으나 선호도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상의 주장적 행동에 대한 지역편견적 판단이 지역 호감도 보다는 지역 고정관념에 의해 더 잘 예언되었을 수 있다. 물론 지역집단에 대한 호감도나 감정에 대한 응답에는 평가우려가 그만큼 크게 개입되었을 수 있고, 따라서 응답자의 자기 보고로 지역민에 대한 감정을 측정본 연구의 측정이 세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인물의 공격성 평가에 있어서의 성

편견적 판단이 성 집단에 대한 호감도에 의해 보다 잘 예언되었는데, 이는 행동과 평가의 차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이라는 사회 정서적 차원의 행동과 평가를 사용하였는데, 일의 차원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판단에는 성 집단에 대한 호감도 보다는 고정관념이 보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성에 근거한 편견적 판단의 경우 지적이거나 혹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그 혹은 그녀가 과제수행 팀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성 집단의 지적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적 평가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 편견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 대상 행동이 집단 고정관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즉, 중립적 행동) 혹은 판단의 차원이 관찰된 행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즉, 지적 특성 평가)에는 대상에 대한 판단이 그가 속한 지역 집단에 대한 호감도에 의해 잘 예언되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집단에 대한 호감도의 영향은 주로 모호하거나 애매한 행동에 대해서 혹은 행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평가의 경우에 주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종 편견적 판단이 나타나지 않아 인종 편견적 판단에 대한 신념과 감정의 영향을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미국 사회에서 인종에 의거한 판단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 비록 여러 비침입적 방법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평가우려를 줄이려는 노력(예를 들어, 이름으로 대상 인물을 조작하였고, 또한 인종 변인을 집단간 변인으로 삼았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측정 방법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인종이나 성 혹은 지역 집단에 의거한 편견을 자동과정 측정 방법(Bargh, 1982; Devine, 1989) 혹은 내현적 반응 측정 방법(Greenwald 등, 1998)을 사용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집단 범주에 대한 신념과 감정에 의해 어떻게 영향받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집단 범주 중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지역이나 성에 근거한 편견적 판단에 대해 그 영향과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실상 사람들이 성편견적 판단과 지역편견적 판단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 행동이나 판단 차원은 소수집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의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행동과 평가 유형들이었다. 즉, 우리 사회에서의 편견의 문제점은 소수 집단 - 즉, 여성과 호남지역집단 - 에 대한 편견적 판단과 왜곡이 문제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남성에 대한 편견적 판단과 호남사람과 영남사람에 대한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은 행동 차원에 대한 편견적 반응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사회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동 유형과 평가 차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 집단에 대해 일의 차원에서의 행동과 평가를 검토한다든지 혹은 지역집단에 대해서 보다 문제가 되는, 부정적 고정관념과 관련된 행동과 평가 차원(예를 들어, 신뢰성의 차원)에 대해 검토하는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성 편견적 판단이 문화에 상관없이 보편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또한 그러한 성 편견적 판단이 문화에 상관없이 성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보다는 호감도에 의해 영향받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화에 따라 성 편견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보편적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편견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비교문화적 연구 방법을 통해 보편적 과정과 보다 특수한 과정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고홍화 (1989). 자료로 엮은 한국인의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 김진국 (1987). 영호남 대학생들의 상호간 차이감각 연구. *사회심리학 연구*, 3(2), 113-147.
- 김혜숙 (1993).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53-70.
-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34.
- Bargh, A. (1982). Attention and automaticity in the process of self-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425-436.
- Batson, C. D., Plycarpou, M. P., Harmon-Jones, E., Imhoff, H. J., Mitchener, E. C., Benar, L. L., Klein, T. R., & Highberger, L. (1997). Empathy and attitudes: Can feeling of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improve feeling toward the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05-118.
- Bobo, L. (1983). Whites' opposition to busing: symbolic racism or realistic group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196-1210.
- Bodenhausen, G. V., & Wyer, R. S., Jr.(1985). Effects of stereotypes on decision making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267-282.
- Cook, S. W. (1984). Cooperative interaction in multi-ethnic contexts. In N. Miller & M. Brewer (Eds.), *Groups in contact: The psychology of desegregation* (pp. 156-186). New York: Academic Press.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Eagly, A. H., Mladinic, A., & Otto, S. (1994). Cognitive and affective bases of attitudes toward social groups and social polici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113-137.
- Fiske, S. T. (1993). Social cognition and social percep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55-194.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Jussim, L., Nelson, T. E., Manis, M., & Soffin, S. (1995). Prejudice, stereotypes and labeling effects: Sources of bias in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228-246.
- Krueger, J., & Rothbart, M. (1988). Use of categorical and individuating information in making inferences about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187-195.
- Pettigrew, T. F., & Meertens, R. W.(1995). Subtle and blatant prejudice in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57-75.
- Sears, D. O., & Kinder, D. R.(1971). Racial tension and voting in Los Angeles. In W. Z. Hirsch (Ed.), *Viability and prospects for metropolitan leadership*. New York: Praeger.
- Stangor, C., Sullivan, L. A., & Ford, T. E. (1991). Affective and cognitive determinants of prejudice. *Social Cognition*, 9, 59-80.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Weber & Crocker. (1983). Cognitive processes in the revision of stereotypic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961-977.
- Wright, S. C., Aron, A., McLaughlin-Volpe, T., & Ropp, S. A. (1997). The extended contact effect: Knowledge of cross-group friendship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73-90.

## **The Effect of Beliefs and Affect Regarding Group Categories on Prejudiced Judgment: A Cross-cultural Comparison between Gender and Racial Prejudice in America and Gender and the Regional Prejudice in Korea**

**Hai-Sook Kim**

Ajou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ttempted a cross-cultural comparison between the processes of the group categories of gender and race in America and gender and region in Korea on judgment. More specifically, it was examined whether these group categories elicited prejudiced judgment as well as whether the prejudiced judgment if any, was based on the belief or the affect regarding the group category.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American and Korean participants showed similar prejudiced judgment(i.e., judging that a man was more aggressive than a woman), based on gender category and it was predicted better by the affect rather than the beliefs regarding gender category. The regional prejudice(i.e., judging that Youngnam people and Honam people were more assertive than Choongchung people) in Korea was predicted better by the beliefs than the affect regarding the regional groups. No significant effect of the race on judgment was found.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as discussed.

**Keywords :** prejudice, affect, belief, cross-cultural study

원고 접수: 2001년 1월 16일

심사 통과: 2001년 2월 7일